

건설산업 동반 성장 전략 방안 개원 5주년을 맞아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노재화)은 지난 3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 5주년 기념 “건설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개원 5주년을 기념하여 건설산업의 양대 축인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과 전략을 제안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토해양부 관

계자들을 비롯한 민간학계 및 건설업계에서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며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에서는 김재영 건설산업정보센터 소장이 “건설산업 상생을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을,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동반성장을 위한 원 · 하도급 상생협력정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재영 소장은 앞으로 종합과 전

문건설업체간 불평등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생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원 · 하도급형 건설생산체계를 협업형(공동도급형) 건설생산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유일한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원 · 하도급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상호협력 방안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중

점추진과제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파트너링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제시됐다.

이현수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재규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원소장, 장용동 해럴드경제 논설실장, 이재립 보림토건 대표이사, 전길주 현대건설 국내영업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대한주택보증, 한국감정원과 교차감사 협약 체결



우측은 대한주택보증 박경훈 상근감사위원, 좌측은 한국감정원 황희성 상임감사위원.

대한주택보증(주)(상근감사위원 박경훈)와 한국감정원(상임감사위원 황희성)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본사에서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교차감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

감사업무매뉴얼을 교환하였다.

교차감사는 타 기관과 교차해 감사를 시행,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최근 감사업무 선진화를 위한 교차감사가 확산되고 있으며 부동산 관련 공기업 간 감사

업무 협약을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OU 체결로 양 기관은 앞으로 감사인력 파견, 감사업무 정보교류, 합동 교육 및 워크숍 정기개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양 기관 감사실 직원이 공직기강점검 등 감찰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2012년부터는 본격적인 교차감사를 실시하여 각 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 박경훈 상근감사위원은 “감사업무에 대한 상호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으로 감사품질 향상, 경영개선 대안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 황희성 상임감사위원은 “업무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및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제도 시행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지난 1일부터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과 선급공동관리를 위한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도입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선급금보증 수수료 할인 제도는 원수급인인 조합원이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했을 때 하수급인 등에 대해 가지

는 채권을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조합은 양도받은 채권 금액에 대하여 선급금보증 수수료의 50%를 할인하는 제도다”며, “조합원은 보증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고 조합은 보증 사고 발생시 양도받은 채권으로 구상권을 행사함으로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합은 선급공동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에스크로 신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선급공동관리는 수령한 선금을 은행에 예금하고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이어서 은행창구를 빈번히 방문해야 하고 이자수익도 낮아 불편했으나, 에스크로 신탁시스템 제도는 인터넷뱅킹을 기반으

로 한 금융상품 활용이 가능해 조합원이 연간 약 40억원 정도 추가적인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업무절차도 대폭 간소화 될 것이라고 조합관계자는 밝혔다.

그 외에도 조합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구고채무부담행위 공사도 시공자금융자 대상에 포함하여 융자는 취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지가 전월비 0.09% 상승

국토부, 2011년 9월 지가동향

9월 땅값 0.09%상승, 안정세 유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11년 9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09%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월)에 비해서는 1.35% 낮은 수준이다

토지거래량은 총 180,860필지, 146,710천㎡로서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필지수 기준 24.6% 증가, 면적

기준 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동월 평균 거래량(188천필지)대비 3.6% 낮은 수준이다. 11년 9월 지가변동률(전월비 기준)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0.05%, 인천 0.05%, 경기 0.13%이며, 지방은 0.05 ~ 0.2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성산구 등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0.09%) 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은 녹지지역(0.14%), 비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0.14%)등의 상승폭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전월과 비슷하고 지목별로는 전(0.15%), 답(0.14%)의 상승폭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전월과 비슷했다.

11년 9월 토지거래량(전년동월비 기준)은 2011년 9월 토지거래량은 총 180,860필지, 146,710천㎡로서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 24.6% 증가, ② 면적 16.6% 증가했다.

토지거래량은 전년 동월(10.9월) 대비 24.6% 증가한 수준이며, 최근 5년간 동월평균거래량(188천필지)보다 3.6% 낮은 수준이다.

용도지역별로는 상업지역(41.3%), 개발제한구역(31.2%), 주거지역(25.9%)의 거래량이 증가하였고, 이용상황(지목)별로는 공장(55.6%), 대지(27.5%)의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시중가격보다 최대 100원까지 저렴한 유류를 구입할 수 있는 알뜰주유소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호)는 고속도로 주유소에 공급되는 휘발유, 경유를 한국석유공사, 농협 등 공공기관과 공동입찰을 통해 저가로 구입해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인 「EX 알뜰 셀프 주유소」를 도입해 내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공동입찰은 지식경제부의 알뜰주유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고속도로 주유

소가 「EX 알뜰 셀프 주유소」로 전환되는 경우 유류가격은 8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인하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육천주유소 등 7개소에 셀프주유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지금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12개소에서 셀프주유기를 운영하고 있어 유류가격 할인폭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해 유사석유 판매나 품질 부적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주유소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식경제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는 1467곳 가

운데 고속도로 주유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의 유사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주유량 속여팔기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한국석유관리원에 의뢰하여 정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EX 알뜰 셀프 주유소」의 등장에 따라 고속도로 운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품 정량 안심하고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고속도로 주유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개정 시급

한국주택협회(회장 김종인)는 서울시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자에겐 합리적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제정(10.13)한「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과 협력관계에 있는 시공자의 파트너쉽을 무시한 채, 맹목적인 공사비 축소 등 시공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재건축 · 재개발사업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는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재건축 · 재개발시장은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뿐만 아니라 유류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 악화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개발이익 감소, 추가부담금 증가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급증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해 “사업기간의 2~3년 단축, 조합원 분담금의 최

대 1억원 인하” 등 목적으로 도입된 공공관리제는 조합(추진위) 운영비 지원 부족, 공공과 조합(추진위) 간 갈등 대립 등으로 오히려 사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금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번 서울시가 제정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는 내역입찰에 입각하고 설계변경 및 공사계약금액

조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만 설계비의 경우, 내역입찰을 위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용역이 추가되면서 조합의 부담만 가중(10~20%)되고 공사비의 경우, 10년이상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특성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인상과 인 · 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미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한국시설안전공단 지진재난 안전교육 시행

국토해양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김경수)은 지진재난에 대한 국민 대응요령 강화를 위해,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진재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시설물별 붕괴징후, 대피요령, 사고신고와 일반 생활안전에 관한 내용을 국토부 공무원과 공단 재난전문가가 지자체 및 학교를 방문하여 진행하게 된다.

교육을 원하는 학교와 지자체는

공단에 교육신청(031-910-4032)을 하거나, 홈페이지(www.kiste-c.or.kr)에서 교육 동영상을 팝플렛을 다운받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단은 ‘건축물 안전상식 및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대국민 홍보자료를 동영상과 삽화형식의 팝플렛으로 제작하여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팝플렛 2만부, 영상물 1만2

천여부를 전국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과 초 · 중 · 고등학교에 배포해 일반인이 누구나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토부와 공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진과 안전사고에 대한 학생, 공무원, 주민들의 대응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진보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 제 25 회 육운의 날 축

“희망찬 내일, 발전된 내일, 육운산업이 이끌겠습니다”

일시 : '11. 11. 14 (월) 11:00

장소 :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서울시 반포동)

후원 :  **국토해양부**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주관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협회

※ 육운업계 종사자 및 국민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